

대한민국 나눔온도를 높여주세요

'저 눈송이가 모두 사랑의열매였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랑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새벽부터 할머니와 패지를 주워 생계를 꾸려가는
7세 소년의 꿈입니다

손 내밀어 주세요
이들의 겨울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나눔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사랑의열매가 함께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모금 및 배분전문기관입니다.

ARS기부 060.700.0060 기부상담 053.980.7800 gb.ches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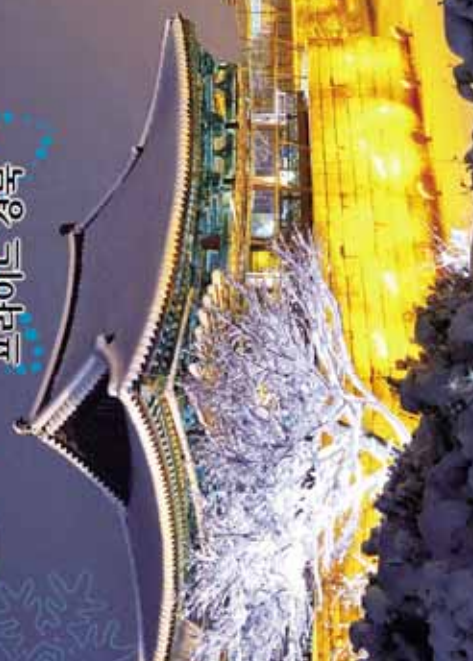
주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경상북도

발간등록번호 75-6170000-000162-08

지역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

Oride Gyeongbuk

프라이트 경북



겨울

[통권 302회]
WINTER

1. JAN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제15회 호미곡 한민족해맞이 축전-강사로 행해진 호미입춤 포항시 호미곡 해맞이중앙 2013 영덕 해맞이 축제 -희망의 종/생명의 빛/영어로 살아있는영문 2013 구미해피엔터테인먼트 시즌4 구미시 구미교 조문 (2012. 12. 14~2013. 3. 3)	2 한국 모더니즘 미술의 사유 포항시립미술관 전관(2. 21~3. 3) GAG TEAM 4WD SHOW -포항 개그맨 쏘 포항아트센터(2012. 12. 22~1. 6) 어린이유치원 백설공주와 일곱신데려 꽃이피는 구미점 (2012. 12. 19~1. 13) 미소2-신국의 딸, 신바 강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 공연장 (2011. 7. 1~2013. 2. 28) 투리아트시즌2 경주특별전 경주조선문화유산 뮤지엄 특별전시관 (2012. 12. 1~2013. 11. 30)	3	4	5 2013 안산염읍축제 안동 염읍유치원(1. 5~1. 9) 2013 청송 전국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일출굴 (1. 5~1. 6)	
6	7	8	9	10	11 이월아 연주회 포항시청 문화동	12 2013 청송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겸 세계선수권대회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일출굴 (1. 12~1. 13)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두드림 공연 교위 삼국유사교과문화회관	25 수원시민교향악단 창단30주년 기념 전국 순회음악회 포항시문화예술회관	26 '후토스'-나무를 부탁해' 안동시문화회관(1. 26~1. 27)	
27	28	29	30 칼로리 콘서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31			

2. FEBR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안동 석빙고 장빙제 예천 교민민속놀이	2 동화유지점 '피노키오의 모험' 구미시문화예술회관(2. 2~2. 3)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사운드 오브 뮤직 구미시문화예술회관(2. 16~2. 17)
17	18	19	20	21	22	23
24 구미 정월대보름축제 정월대보름 김천단말이 축제 영선 정월대보름 시안한마당 칠곡 대보름 달맞이대우기 청도 정월대보름축제 함포해수장 정월대보름축제 안동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울릉 정월대보름 사랑달맞이 행사	25	26	27	28 울진 대개축제 울진군 후포항 한마을광장 (2. 28~3. 3)		

3. MARCH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의성 산수유꽃 축제	2 '후토스'-나무를 부탁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3. 2~3. 3)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제8회 예나눔(컬렉터)협창단 정기연주회 구미시문화예술회관
17	18	19	20	21	22	23 구미남성중창단 창단연주회 구미시문화예술회관
24	25	26 이탈피 찬스 예방 인형극 구미시문화예술회관	27 뮤지컬 '하인리히 뵉쿠' 구미시문화예술회관(3. 27~3. 29)	28 제16회 영덕대개축제 영덕군 강구항 일행(3. 28~4. 1)	29	30
31 제5회 장성이 댄스 페스티벌 구미시문화예술회관						

CONTENTS
PRIDEGYEONGBUK
WINTER. VOL.392

Special Theme	04 2013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13 나눔 캠페인' 개최
	06 김관용 도지사, 새로운 지방시대 기틀 구축 위해 본격 활동 나서
	08 '서울 석세스 어워드(Seoul Success Awards 2012)' 수상
알찬살림 부자경북	10 2012 외국인투자유치 전국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12 경상북도 무역흑자 300억\$ 시대 열다!
웃음가득 행복경북	14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빈틈없이 준비되고 있다!
	16 경상북도 천혜의 강·산·해 자원 활용, 관광인프라 대폭 확충!
	17 귀농·귀촌의 1번지! 경상북도로 오세요!!
밝은미래 희망경북	18 Why? 독도!
	20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연장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21 스토리가 있는 테마 숲길 만든다!
도민사랑 일류경북	22 경북 동해안 수산업 진흥 위한 전초기지 '경북어업기술센터'
	24 경북도, 건강음식점 지정·운영, 시·도 자체사업 전국 최초 시행
	25 경북도, 산림생태지원 소개·안내 책자 및 지도 발간
나드리, 이리오이소~	26 경북 겨울여행 떠나요!
프라이드 News+	30 찰칵! 경북의 오늘
	33 도정단신
	38 도의회 소식
	47 경북 알리미
	50 지금 시·군에서는
	53 건강상식



포지 이야기
신라시대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상채한 연회를 베푼단 '동궁과 월지' (舊 안압지)에 겨울밤, 화안 눈이 소복이 찾아왔다.
2011 경북관광사진공모전 _ 김효정 '안압지의 생아'(가작)



WINTER

·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김관용 · 편집인 | 이상국 · 발행일 | 2013년 1월 2일
· 문의처 | 경상북도 대변인실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1445-3)
TEL. 053)950-3058 FAX. 053)956-4926
· 도정 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의 구독을 원하시거나 주소가 바뀌신 분은
경북도청 대변인실(053.950.30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대한민국!
“이웃사랑이 모일 때마다
행복온도가 올라가요!!”



경상북도는 12월 3일 도청 앞마당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대공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송필각 도의회의장, 이영우 도 교육감, 강신명 도 경찰청장, 강신성일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1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는 '희망 2013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한 내빈들이 모금함에 성금을 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함께 '사랑의 온도탑'을 제막했으며, 도내 35개 사회복지시설에 승합차 19대, 경승용차 5대, 장애인 리프트카 11대 등 차량 35대를 전달하는 '사랑의 열매 차량전달식'을 거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나눔 문화 활성화를 염원하는 도민의 뜻을 모아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김관용 도지사는 희망메시지를 통해 “이웃을 돕는데 계절이 따로 있을 수 없지만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지는 연말에 사랑의 온도탑이 추위를 녹이는 질화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이번 나눔 캠페인 모금 목표액을 지난해 목표 95억원 대비 7.3% 증가한 102억원으로 정했으며, 경북도청 앞마당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이웃사랑 성금이 모일 때마다 행복온도가 올라 모금 목표액 102억원이 모이면 100도를 달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캠페인 기간 동안 언론사 방송모금, 가두모금 캠페인, 금융기관모금, 학교모금, ARS (060-700-0060)모금 등 다양한 나눔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지방시대 기틀 구축 위해 본격 활동 나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해야”

김관용 도지사가 지난 10월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6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지방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기틀을 구축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10월 25일 시작된 김관용 도지사의 행보는 국회, 중앙정부,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 방문 등으로 폭넓게 이어져 한 달여간 만난 인사만 해도 국무총리, 국회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언론사 사장 등 20여명에 이른다.

또한 11월 12일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와 지역 언론인클럽 간담회를 이어갔고, 11월 13일 국회 귀빈식당

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의, 11월 1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 참석, 이어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와 지방분권 촉진 전국광역 기초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관용 도지사가 이처럼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지방 살리기를 위한 전 방위 광폭 행보에 나서게 된 것은 날로 심화되어 가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분권의 제도적 미흡에 따라 지방자치가 위기를 맞고 이대로 가면 지방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다.



Pride Gyeongbuk

실제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재정은 2할 자치, 사무는 3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국가경영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중앙이 결정하면 지방은 일방적으로 따르는 수직적 구조를 고착시켰기 때문이다.

가장 큰 피해는 중앙 독점이 수도권 독점 논리로 직결되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는 인구의 50%, 금융의 67%, 대기업 본사의 88%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에 따라 김관용 도지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최소한 5할 자치는 할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겨주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도 정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이 이대로 방치되면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지방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지방자치의 산 증인이

다. 지금까지 기초단체장 3선과 광역단체장 2선 등 유일한 5선 단체장으로서 누구보다 지방 현장을 꿰뚫고 있으며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99년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2006년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맞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뜻을 하나로 결집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 공동회장으로서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방의 생존권 수호와 국가 균형발전에 앞장서 왔다. 김관용 도지사가 제6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것도 이러한 ‘초광역 리더십’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앞으로 17개 시·도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실질적인 지방자치,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방이 기획해 국가를 움직이는 선도적 정책 추진

광역행정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공로 인정!

김관용 도지사가 12월 3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서울 석세스 어워드 2012(Seoul Success Awards 2012)' 시상식에서 정치부문 광역단체대상을 수상했다.

'서울 석세스 어워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열정으로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한 국지방자치학회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등 국내 최고 권위의 기관들이 심사기관으로 참여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

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부문에서 '정치부문' 김세연 국회의원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경제부문' KB금융그룹과 하이마트, KB국민카드, (주)그레미, '사회부문' 서원석 성원제강 회장, '문화부문' 가수 박완규와 피에스타,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에 빛나는 영화 '피에타(Pieta)'의 여주인공 조민수, 국악예술단 고창, 최근 '강남 스타일'로 세계 팝 시장에서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가수 싸이가 '문화대상'을 수상했다.

Gyeong Sang Buk-do



김관용 도지사는 '지방이 기획해 국가를 움직이는 선도적 정책 추진'과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과 '광역적 협치와 지방이 살하는 시대 구현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3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경북이 기획해 국가 프로젝트로 채택된 대표적 상품들이다. 지난 1998년 시작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그간 성장을 거듭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문화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韓-터키 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내년 행사 개최 준비가 한창이다.

또한, 지난 5월 대통령이 올린 원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책사업화를 약속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미래를 내다본 경북의 안목과, 집요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획기적 사례이다.

그리고 UN, KOICA 등과 함께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국가가 할 일을 지방이 하고 있다'는 국내·외의 평가 속에 지구촌 빈곤 극복을 위한 최선의 '공적원조(ODA) 모델'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으며, 국가 브랜드 제고는 물론, 글로벌 경쟁시대에 지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경제를 뛰어넘은 타 광역시도와의 '초광역 협치'는 현행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한 우수사례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2010년 4대강 사업이 정치적 논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자 '낙동강 연안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켜 갈등과 분쟁을 조율하고 '지역 상생과 화합'을 이끌어 낸 것과, 강원권 충청, 경남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열악한 SOC 도로·철도망을 대거 확충해낸 성과는 '초광역 협치'의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한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 투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06년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정치권을 한데 모아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 회장으로서는 지방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이러한 '초광역 리더십'을 인정받아 최근 '제6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의 영광을 300만 도민들께 돌리고 영예로운 상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방 자치의 진정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2 외국인투자유치 전국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 투자유치 13조 7,261억원 달성, 20조원 목표 조기달성 예상 |

경상북도는 11월 1일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주한외교 사절, 외국상공회의소 관계관, 해외글로벌 CEO와 방한투자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2012 외국기업의 날(Foreign Company Day 2012)' 행사에서 전국 외국인투자유치 평가 최우수기관상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경상북도의 최우수기관 수상은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실적, 투자유치 기반조성 등 환경개선 노력도와 프로젝트 수행실적 등 종합적인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2004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명실공히 투자유치 최우

수 지자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민선5기 출범 2년 3개월만인 지난 2012년 9월말 현재 투자유치 공약 금액인 20조원의 68.6%인 13조 7,261억원을 이미 달성하여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앞서고 있으며 특히, 2012년 목표액 5조 1천억원의 90.8%인 4조 6,320억원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경제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경제의 불안감, 대내적으로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투자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 낸 성과라 더욱 돋보인다.

| 민선5기 공약 '투자유치 20조원 달성' 위한 계획

경북도에서는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투자유치 20조원 달성'과 '일자리 창출 22만개'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민선5기 공약사항인 투자유치 20조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권역별, 산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 투자유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투자환경 개선

민선5기 시작과 함께 조직을 '투자유치본부'와 '일자리경제본부' Two Top 체제로 개편하고, 기존 투자유치과를 투자유치단으로 격상했으며, 투자유치단장도 외부 공모를 통해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는 한편, 2011년 1월에는 국내외 투자기업들의 신속한 정보수집과 빠른 대응을 위해 '경상북도 투자유치 서울센터'를 개소하고 도내 기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투자유치단내 유치기업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체제를 정비했다.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지역별 자문관 및 국내 산업별 자문관 위촉과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 도민회, 해외투자통상주재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투자정보의 선점과 산업동향 입수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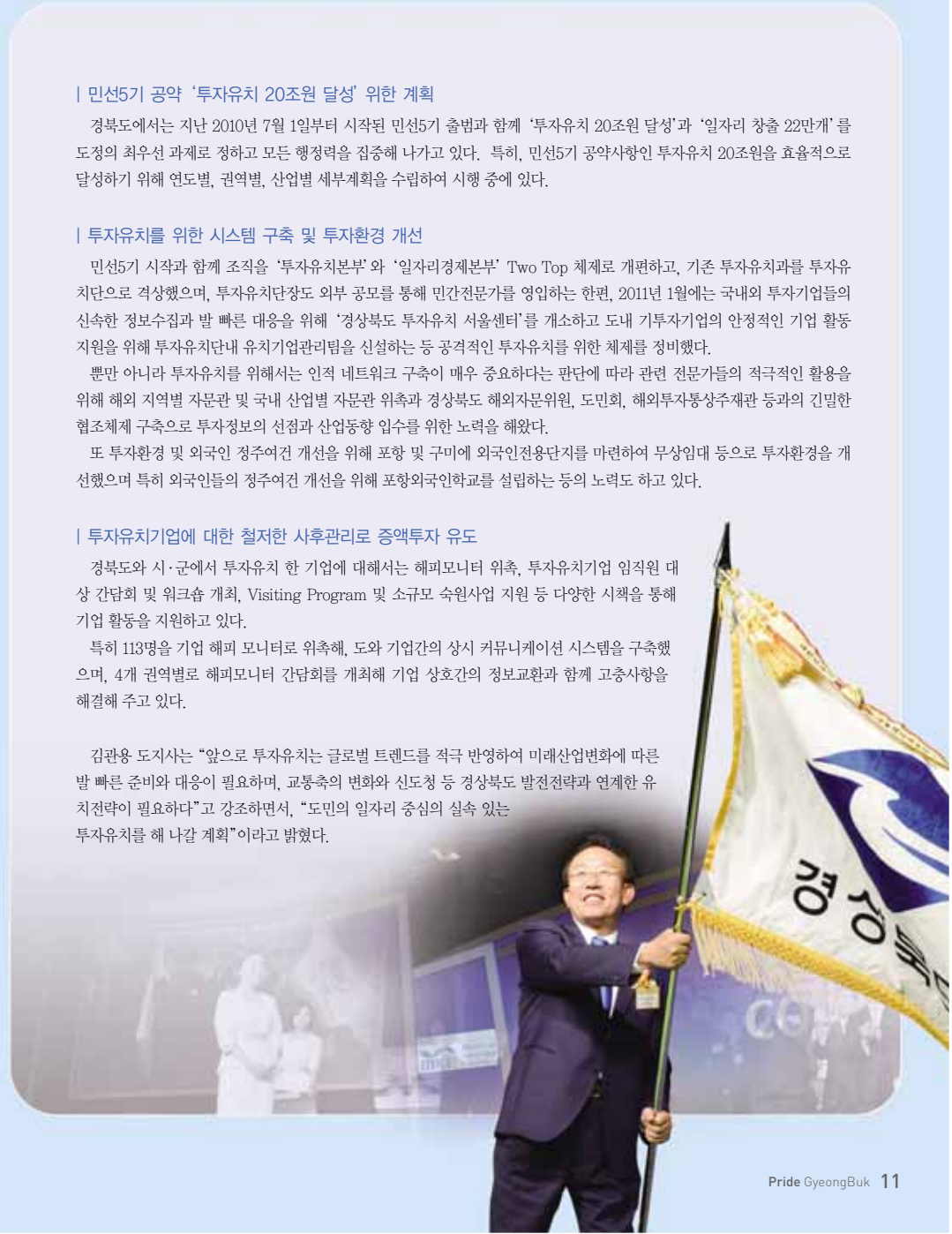
또 투자환경 및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포항 및 구미에 외국인전용단지지를 마련하여 무상임대 등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했으며 특히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포항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증액투자 유도

경북도와 시·군에서 투자유치 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피모니터 위촉, 투자유치기업 임직원 대상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Visiting Program 및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13명을 기업 해피 모니터로 위촉해, 도와 기업간의 상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4개 권역별로 해피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함께 고충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앞으로 투자유치는 글로벌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미래산업변화에 따른 발 빠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며, 교통축의 변화와 신도청 등 경상북도 발전전략과 연계한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도민의 일자리 중심의 실속 있는 투자유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수출 '선전', 무역흑자 '1위'

2012년 수출 500억불, 무역흑자 300억불 초과 예상

경상북도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략품목 수출성과와 신흥시장 신규개척 등의 파급효과로 2012년 한 해 수출액 500억불 이상 달성을 예상했다.

이와 함께 2012년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20억불로 전망,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258억불 흑자로 무역흑자 전국 1위를 달성, 국가 무역수지 흑자의 116%를 차지했다.

경북도는 국가 전체적으로 침체, 위기라고 할 만큼 지난해 보다 감소하는 수출실적 추이에도 2012년 10월말(가용통계) 기준 425억불을 수출, 한 해 수출실적이 전년도 수준(521억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어려운 수출시장에서 어느 지역보다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수출성과와 실적은 경북도의 탄탄한 지역산업기반과 통상지원정책을 바탕으로 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경북도의 수출선전 및 무역수지 흑자 1위의 주요 요인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전략품목 수출지원정책과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시장개척 노력의 성과 가시화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경북도의 전략수출 증점지원품목인 자동차·

기계부품류의 경우 2011년보다 11.4%가 증가해 34억불 수출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말레이시아 등 신흥 6개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평균 19% 이상 증가하는 등 신흥시장개척의 정책지원효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역기업의 수출성과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 신흥 6개국 시장으로의 수출액은 2012년 말까지 약 90억불로 예상되고, 전체 수출비중도 2011년 14%에서 2012년 10월말 기준 17%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20%까지 올라 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용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출노고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과 신흥시장개척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실크로드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경북의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통상분야 전략프로젝트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탄불 현지 공동사무국 설치, 양국 공동조직위 출범 등 추진 '순조'

터키 진출 한국기업·교민회 대상 후원회 대성황

경상북도가 터키 이스탄불시와 공동개최하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준비가 본격도에 올라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용 도지사)는 11월 22일 터키에서 '한국기업 통합투자추진회'에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설립회 및 후원행사'를 개최,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는 주(駐)터키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행사로 이인선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이스탄불-경주엑스포 투자추진단과 LG전자, 포스코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법인장들과 교민 등 40여명이 참석, 내년 엑스포에 적극 후원·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11월 11일에는 터키 내 한류 팬들과 한인 동포들이 이스탄불에서 세계 80여 개국 10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스탄불 유라시아 마라톤대회(The 34rd International Istanbul Eurasia Marathon)'에 참가해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13'을 전 세계에 홍보했다.

특히 한국문화원 및 한국대사관 직원, 경북도와 경주시에서 이스탄불로 파견된 공무원, 이스탄불시 엑스포 담당 공무원이 함께 참가,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홍보 티셔츠를 맞춰 입고, 출발 전 '짜이의 강남스타일'로 몸을 풀며 전 세계 참가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한국과 터키 양국 국기와 엑스포 홍보 현수막을 흔들며 걷는 동안 터키 국영방송사인 TRT와 이스탄불 내 주요 신문사에서 이들을 취재하며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을 소개하기도 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행사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엑스포 행사에 대한 국제 신인도도 높아졌다. 경상북도는 11월 1일 서울 고궁박물관 제1회의실에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관련 도-정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 이스탄불 엑스포행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계사업 참여와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또한 12월에는 터키 이스탄불 현지에 공동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 준비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스탄불시는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 지난 10월부터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별도 준비에 들어갔다. 이스탄불시 문화국 베테랑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2013년 상반기까지 40명 선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우리 경상북도만큼이나 성공개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은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23일 동안 '길, 만남 그리고 동행'을 주제로 터키 이스탄불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지에서 50여 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에서 개최하는 경주엑스포 행사로, 2013년 1월 중순 무렵 양국인사 10여 명씩으로 공동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3월에는 세부 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상북도에서는 행사 홍보와 관람 붐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16일부터 대구은행, 농협과 손잡고 개발한 엑스포 복합금융상품은 출시, 석 달 만에 769억3000만원(1만7천410구좌)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을 관람하면 추가 금리와 여행상품 할인서비스 등을 받는다.

행사는 전시, 공연, 영상, 체험, 특별이벤트 등 9개 분야에서 30여개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으로, 신라유물의 고귀한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낸 '천년의 신라, 미래의 천년을 살다' 전시와 최근 싱가포르에 수출해 국제적 흥행에 성공한 닌버벌 공연 '플라잉', 전통문화와 의식주로 한국인의 삶을 표현한 '한국문화관' 등을 통해 경북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할 방침이다.

또 한류 붐 확산을 위해 한국영화제, 국악·K팝 공연, 비보이+퓨전공연, 태권도시범단 공연, 전통문화체험 등의 행사도 진행한다. 동양과 서양, 지구촌 문화 화합을 위해 그랜드 바자르(30여개국 참가), 세계민속공연축제, E-Battle 대회도 준비 중이다.

주요 행사 장소는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는 이스탄불 최대 변화가 '탁심광장', 비잔틴제국 최고의 건축물인 '성 소피아성당', 오스만제국 황제들의 거처 '톱카프 궁전' 등이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관용 도지사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행사는 실크로드의 기·중착지였던 경주와 이스탄불을 다시 연결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이으면서 연 9%대 경제성장을 자랑하는 혈맹국 터키와 손잡는 행사"로,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외교적 관점에서 성과를 거두는 범정부적, 국제적, 미래지향적 행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로 다듬어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경북을 각인시키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3대 문화권, 낙동강권 등 신규관광지 개발 박차!

유림문화유도피아, 낙동강신나루 등 관광지 추가지정

경상북도는 2013년 3대문화권, 낙동강권역에 신규관광지 10개 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동해안권, 백두대간권역의 기존 관광지 7개 지구에 106억원을 투입하여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게 노후 관광시설 정비 등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도내에 현재까지 지정된 관광(단)지는 관광지가 30개 지구, 관광단지 5개 지구, 관광특구 3개 지구 등 총 38개 지구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3대 문화권과 강변문화권을 신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2012년 청도 신화랑(운문, 303,106㎡), 울릉 개척사(황토구미·학포, 152,244㎡) 등 2개 지구를 신규 관광지로 지정하고, 감포관광단지 골프장 증설과 장사해수욕장 콘도미니엄 민자유치 등 3개 지구의 조성계획을 변경·승인했다.

2013년에는 안동 유림문화 유도피아, 예천 삼강 녹색문화 상생벨트, 상주 낙동강 신나루, 김천 황악산 하야로비, 봉화 누정휴분화누리 등 9개소와 민간개발 1개소(포항)를 포함하여 총 10개 지구가 관광지로 신규 지정되고, 상주 문장대, 청송 주왕산, 경주 마우나오션(민자) 등 3개소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어 도내 관광지가 향후 50여 지구 이상으로 확대·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북도는 광역 관광개발사업지구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민자유치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존 관광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해 2012년 포항 호미곶, 경주 보문, 영천 치산, 상주 경천대, 영덕 장사, 예천 포리, 봉화 오진, 울진 백암 등 8개 관광지에 85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영천 치산, 상주 경천대, 경주 보문, 청도 용암온천 등 7개소에 106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지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경주 보문단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문호 경관교량 및 야간경관 조명사업(8km, 70억)이 2012년에 관광특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보문호 수상공연장시설(무대, 스크린 등)을 확충하여 보문관광단지가 주·야간은 물론, 사계절 국내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야간관광 콘텐츠 기반 확충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낙동강권, 백두대간권, 동해안권, 3대 문화권 등 광역 관광권역을 신규 관광지로 추가지정·개발하여 민자유치 기반조성 및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귀농·귀촌의 1번지! 경상북도로 오세요!!

대기업 은퇴자, 제대군인, 재경출향인 대상 귀농·귀촌 공략 나선다!



경상북도는 11월 24일 포스코 은퇴자 및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포항시 죽장면 소재 포스코 에코팜(Ecofarm)에서 귀농·귀촌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대구·경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포항고용지원센터와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가지는 등 귀농·귀촌 인구의 지역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2013년 상반기에는 재경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도권 공략에 나선 계획으로, 귀농·귀촌현황, 경북의 지원시책, 단계별 맞춤형 지원시책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된 '귀농·귀촌 길라잡이' 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귀농·귀촌 시책 설명회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경북도의 귀농·귀촌 동향은 2009년 1,118가구, 2009년 1,112가구, 2011년에는 1,755가구로 급증했다. 3년간(2009~2011) 전국의 귀농·귀촌 18,650가구 중 경북이 3,985가구로 전국의 21.4%를 차지하여 단연 귀농·귀촌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농도 경북의 농업 이미지 쇄신 노력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본격화, 그리고 경북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지역소재 기업의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설명회를 통해 귀농·귀촌 지원시책과 성공사례 소개 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경북도가 명실 공히 대한민국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독도 동·서도 봉우리 공식 지명 부여

동도 '우산봉', 서도 '대한봉' 동해에 우뚝 솟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한 독도 동·서도 봉우리의 공식 지명이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29일 관보에 고시되어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독도의 지명은 동도 봉우리(해발 98.6m) '우산봉(于山峰)', 서도 봉우리(해발 168.5m) '대한봉(大韓峰)', '전차바위(戰車바위)', '해녀바위(海女바위)'의 지명이 제정되어 독도는 이번에 제정한 4건의 지명을 포함하여 29개의 공식 지명을 갖게 되었다.

제정·고시된 지명은 국가기본도, 교과서, 지리지, 각종 포털사이트에 반영되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http://map.vworld.kr>) 및 국토포털(<http://www.land.go.kr>)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상북도 이주석 행정부지사(도 지명위원회 위원장)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의 지도서비스 '구글맵'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고, 또한 '구글맵'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하는 등 독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시기에 독도 동·서도 봉우리와 부속도서·바위의 공식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적 관심 고조와 우리나라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플랫폼>



<국토포털>

글로벌 독도홍보대사 발대식

경상북도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만크는 10월 27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제2기 글로벌 독도홍보대사' 교육과 함께 발대식을 갖고, 최근 일본 정부가 국제적 로비활동으로 동해와 독도에 대한 표기 오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한국의 역사와 정보에 대한 오류 시정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세계적인 지도검색 사이트인 구글맵(maps.google.com)이 '독도' 표기를 삭제하고, '리안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변경한데 대하여 이를 항의하고 즉각 정정을 요구했다.

포켓용 독도 교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발간

독도에 대한 일반현황은 물론 역사와 진실 수첩 속에 담아

경상북도는 도 소속 공무원들이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포켓용 책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공무원으로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반현황은 물론이고 역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전반 상황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용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책자는 32절(수첩) 크기에 총 100페이지의 분량으로 독도의 일반현황, 독도 영유의 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독도, 대한민국의 독도 관리와 이용, 일본의 독도 침탈 역사와 현황, 독도의 미래, 부록,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독도 영유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과 지도 자료, 사진 등을 28절 첨부하여 내용 이해를 돕도록 했다. 부록에는 연표와 주요사료 등은 도표로 정리했고, 우리 정부(외교통상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입장을 실어 홍보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경북도는 도청 공무원 외에도 울릉군 전 공무원, 그리고 도내 중·고교 490개교(校), 울릉(독도)경비대, 기타 독도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에 배부하여 독도 교육과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케 했다.

▶ 담당부서: 독도정책과 053)950-2283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연장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경북도, 대구시 상생협력의 결과 대구경북 동반성장의 큰 역할 기대



경상북도는 지역주민의 숙원인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연장사업이 드디어 기획재정부 2013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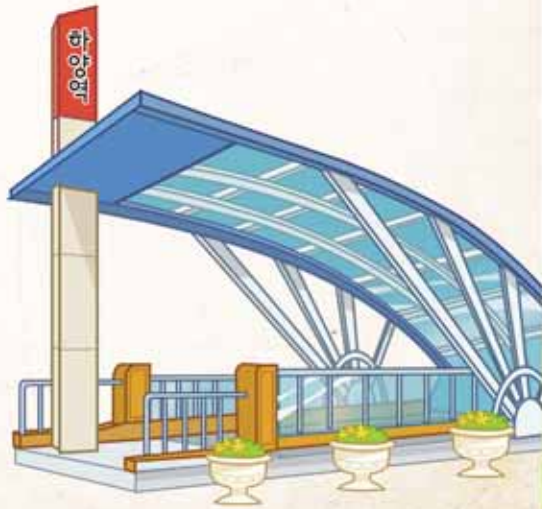
이는 지난 6월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이어 12월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됨으로써 대구지하철 하양연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대구지하철 1호선은 1997년 11월 개통 이후 15년 동안 대구 안심역까지 운행되었으나, 경북도와 경산시가 수차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예비타당

성조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경산시 관내 대학과 제조업체, 시민들의 교통편의 등 장기적 관점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시민단체, 언론사 등의 적극적인 공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연장사업은 대구 동구 안심에서 경산 하양까지 8.77km 연장으로 총사업비 2,279억 원이 투입(국비 60%, 지방비 40%)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에 이어 대구와 경산을 잇는 순환선 형태의 역할로 지역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어 대구 도심권과 경산시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권의 확대 등 양 도시의 상생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2013년 상반기 KDI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대구시, 경산시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정치권, 언론,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타당성 조사과정에 각종자료 제공 등 충분한 대비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스토리가 있는 테마 숲길 만든다!

경북도, 낙동강 명품보 주변 산림을 이용한 숲길 조성 추진

경상북도는 아름다운 낙동강 명품보(구담보~달성보) 구간과 수변을 조망할 수 있는 낙동강 풍경트레일 조성사업을 2013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 트레일 :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는 숲길)

낙동강 풍경트레일 사업은 경북도가 20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2년 실시계획을 마치고, 2013년도 국비를 확보해 안동시 등 4개 시·군 68km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사업비 285억원을 들여 낙동강 구담보에서 달성보까지 9개 시·군에 걸쳐 총 659km의 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낙동강을 따라 걷는 파노라마(본선) 숲길 288km, 낙동강을 조망하며 전망루까지 가는 전망 숲길 50km,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산림자원·마을을 이어주는 지선 숲길 321km로 구성되며, 숲길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센터, 단절구간을 이어주는 도보교, 전망루 등 부대·편의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구간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안동 역사체험길, 상주·문경낙동강놀이길, 칠곡 낙동강산업단지길, 성주 무릉도원길 등 테마가 있는 숲길로 조성해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들이 편안히 즐기며 걸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숲길 체험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백두대간 트레일, 낙동정맥 트레일, 지역 트레킹길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이를 역사·문화·인물 등과 접목한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관광자원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풍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어촌! 초일류 경북 수산!”

고래 형상화한 청사 준공, 환동해 물류 허브 영일만항 ‘랜드마크’ 우뚝

경상북도의 물류가 세계로 나아가는 곳, 환동해 물류 허브 포항 영일만항 중심에 동해 바다를 힘차게 헤엄치던 고래 한 마리가 올라앉았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을 받아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 고래는 바로 얼마 전 준공한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의 청사 모습이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는 지난 11월 20일 총 공사비 26억원을 투자하여 부지규모 1,300㎡, 연면적 1,029㎡에 1층에 사무실 및 병원 사육실, 2층 어업인 교육장, 3층 수산생물 병성감정실 등을 갖춘 새로운 청사를 포함 영일만항내에 준공했다.

전국 공모를 통해 바다로 힘차게 헤엄쳐 나가는 고래를 형상화한 청사 건물은 영일만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경상북도의 33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으로 접해 있는 청정한 동해, 경북의 바다, 동해의 수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이다.

경북 동해 수산업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보급하고 수산전문인력을 육성·훈련하며, 변화하는 환경으로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의 회복, 안전수산물의 생산·관리 등 그야말로 경북 수산업 발전을 위한 최일선 '전초기지'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9년 수산기술 보급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어 2009년 4월 23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 현재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경북어업기술센터는 국내 수산생물에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스러운 경우 대상 수산생물에 대해 전염병을 진단하고 조치하는 '수산생물질병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다.

특히 연간 방류종묘질병검사, 병성감정, 일반진료 등 6,500회 이상의 질병 진단 실적을 나타냄으로써 전국 최고의 수산생물질병 진단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번에 신축한 경북어업기술센터 청사에는 임상해부 검사실, 병원사육실, 병성감정실 등 수산동물 질병의 진단 시설, PCR반응기 등 21종의 수산생물질병진단 장비를 갖추고, 수산질병관리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진료 수준을 한층 높였다.



또한 그동안 시행해 온 어류이동병원을 확대 운영하고 수산생물 진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거리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정한 동해안이 우리나라 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도다리, 조피볼락, 참전복, 우렁쟁이, 홍해삼 등 5대 양식 전락품종을 선정, 집중 육성하여 어업인 소득배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어업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시범어장 개발 확대, 수산전문 인력양성, 수산생물 질병관리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 해파리, 냉수대 등 이상해황 피해 저감,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통한 어촌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에는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기반을 마련,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항생제 잔류물질, 금지약품, 식중독균 등 39종을 검사하여 생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수산물 위생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에 일익을 담당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가 앞장서는 "풍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어촌! 초일류 경북 수산업!"의 희망을 300만 도민과 함께 응원한다.

나트륨 줄이Go~ 건강 올리Go~



경북도, 건강음식점 지정·운영, 시·도 자체사업 전국 최초 시행

경상북도는 고혈압·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의 원인인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 건강한 식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나트륨 일일섭취량 20%(소금 2.5g) 저감 목표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 자체사업으로 '건강음식점 지정운영 추진계획'을 수립, 참여업소 31개소를 선정하여 각 업소의 대표메뉴 또는 나트륨 함량이 높다고 판단되는 메뉴에 대해 나트륨 함량 분석을 실시, 나트륨 저감화 현장맞춤 기술지도 및 영업계를 지원하여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유도했다. 나트륨 함량 개선결과에 따라 건강음식점 인증 표지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5,000여명의 신규영업주 위생교육 시 나트륨 줄이기 자율 이행선언문을 채택하여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장했으며,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에 나트륨 줄이기 실천 요령집을 보급하여 음식을 짜지 않게 조리하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2013년에는 건강음식점 3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외식업, 조리사회와 함께 나트륨 줄이기 결의대회 및 저염식 메뉴개발·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한 식생활문화 조성 및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053)950-2434

※건강음식점? 대표 메뉴의 나트륨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이 중 나트륨이 높은 음식을 대상으로 양념이나 육수의 염도를 낮추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트륨을 낮춘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경북의 산림, 관광과 휴양으로의 초대

경북도, 산림생태자원 소개·안내 책자 및 지도 발간

경상북도는 산림생태자원 정보를 소개하고 그 이용을 안내하는 '산촌에 가면 살맛나네', '산림생태지도(증보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 및 지도는 경상북도의 산림관광·휴양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로 중·고등학생에게는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귀중한 학습서로, 일반인에게는 경북지역의 산촌에서 휴양이나 관광을 즐기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촌에 가면 살맛나네'는 경북지역의 산촌마을을 중심으로 계곡·고개 그리고 주변의 볼거리를 1박2일의 여행정보로 제공하는 책자로 산촌을 중심으로 엮힌 이야기와 잠재적 산림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소개했다.

또한, '산림생태지도(증보판)'는 산촌생태마을, 자연휴양림, 수목원, 삼림욕장, 숲길, 나무 등을 이미지화 한 접시식 휴대용 지도로 소개하여 산림체험교육·휴양 정보를 수록했다.

경북도는 이들 책자 및 지도를 일반인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 및 전국 국립립도서관 등에 배부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백두대간 및 낙동정맥에 얽힌 이야기 등 경북산림의 우수성을 알리는 산림관광콘텐츠에 관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 담당부서 : 산림비즈니스과 053)950-2852

재미가득

겨울축제

춥다고 움츠리지 말고 경북의 겨울축제에서 신나는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축제의 열정을 만끽하다보면 어느새 추위는 싹 잊게 됩니다.



양산얼음축제 빙어낚시체험



정월대보름 감천달맞이축제

정월대보름 감천달맞이축제

김천시

- 일 2013. 2. 24(일)
- 장 김천백사정(지좌동)
- 주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줄다리기, 대보름 음식체험, 연날리기, 뿔놀이, 부호
- ☎ 054)20-6064
- URL <http://www.gj.go.kr/culture>

안산얼음축제

안동시

- 일 2013. 1월 중
- 장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임산유원지 일원
- 주 썰이치기, 썰매타기, 스케이프타기, 산천어연습장기, 송어낚시체험, 빙어낚시체험, 얼음축구, 얼음이끼뽑기
- ☎ 054)840-4322
- URL <http://www.lourandong.com>

영주시 순흥 초군청놀이

영주시

- 일 2013. 2. 24(일)
- 장 영주시 순흥 선비촌 주차장
- 주 음복술 마시기, 초군청재민놀이, 사진전, 상하리줄다리기, 특산물판매, 초군청농익놀이
- ☎ 054)638-6444
- URL <http://tour.yeongju.go.kr>

영양군 옥녀봉 장승제

영양군

- 일 2013. 3. 12(화)
- 장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옥녀봉
- 주 길놀이, 고추장승조성행사, 장승살풀이, 장승기원무, 장승제례, 축하공연 및 장승퍼포먼스, 장승축하무
- ☎ 054)680-6067
- URL <http://tour.yyg.go.kr>

영덕 대게축제

영덕군

- 일 2013. 3. 28(목)~4. 1(일)
- 장 영덕군 일편 (주 행사 : 삼시해상공원)
- 주 해상산책로체험, 동해옹왕 기원제, 황금명덕대게 낚시체험, 영덕빅대게 김찍경매, 지역문화공연
- ☎ 054)730-6755~7, 054)730-6682
- URL <http://crab.yd.go.kr>

청도군 정월대보름축제

청도군

- 일 2013. 2. 24(일)
- 장 청도군 청도천 둔치
- 주 달집태우기, 위불놀이, 민속연날리기 대회, 제기치기, 부호, 널뛰기, 뿔놀이, 새시음식 나누어먹기
- ☎ 054)370-2371
- URL <http://tour.cd.go.kr>

울진군 울진 대게축제

울진군

- 일 2013. 2. 28(목)~3. 3(일)
- 장 울진군 후포항 한마을광장
- 주 대게뚜껍 소원일기, 몽선아트, 항주머니, 종이접기, 울진대게 볶은대게 무료시식, 천연염색, 전통주시음
- ☎ 054)782-1501
- URL www.ujn.go.kr



영덕 대게축제



정월대보름축제



겨울별미



아름다운 경북의 자연경관을 흠뻑 즐기셨다면
산천천미 겨울별미로 속까지 든든하게 채워주세요!



과메기



매서운 겨울바람에 청어를 얼리고 말리기를 수없이 반복하여 탄생한 과메기는 쫄쫄득득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과메기의 주재료인 청어와 콩치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성인병 예방에 좋고 과메기 축제까지 열린다.

안동 찜닭



안동 찜닭은 닭고기에 당면과 청양고추, 감자, 마늘, 홍당무 등 갖은 채소를 넣고 간간한 진간장과 물엿으로 간을 하여 배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의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다. 푸짐한 양과 특이한 맛으로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다.

약돌솔잎한방찜



약돌돼지고기는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우면서 맛이 좋고, 입안에 기름기가 남지 않아 식미가 산뜻하다. 특히 '솔잎한방돼지찜'은 삼겹살과 족살을 한약재와 인삼, 호두, 은행 등 13가지 재료와 함께 찌낸 문경만의 음식으로 꼭 먹어봐야 할 별미이다.

청도 추어탕



청도 추어탕은 민물고기를 섞어서 맑게 끓여내는 '민물고기 추어탕'인 점이 특징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른 지역의 추어탕에 비해 국물이 맑고 맛이 시원해 오히려 더 인기를 끌고 있다.

광어미역국



광어를 통째로 한 마리를 넣어서 독식할 수 있는 광어미역국은 생일날 또는 특별한 날에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다. 혈관을 살리는 오메가3, 알라닌과 글루탐산 등의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해 감칠맛이 나며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청도 추어탕

달기약수담백숙



약수담백숙은 천분 함량이 많은 탄산수가 닭의 지방을 제거해주어 고기 맛이 담백하고 먹기에 좋다. 약수만으로도 좋는데 인삼과 황기, 감초와 밤, 대추, 녹두를 넣어 더욱 건강에 좋다. 약수로 끓여서 푸르스름한 특징이 있다.

울진대게



대게는 다른 바다게보다 키토산이 풍부함은 물론 지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허약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다. 속이 확실히 시원하고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대게의 맛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빙어



겨울 낚시의 재미와 고소함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빙어요리는 재미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먹거리다.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구루병 예방에 좋다. 안동호, 문경 경천댐, 의성 안계조성지, 구미 백현지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위기에도 강하다!

기술과 경영혁신으로 성장하는 '경상북도 신성장기업' 선정·표창



경상북도는 12월 6일 기술과 경영혁신으로 매년 성장하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구미 위드시스템(주), 김천 삼성파워텍(주), 경산 (주)핀트, 문경 (주)엔에스라이팅, 영천 삼성유리공업(주), 김천 바이오라이트(주), 경주 삼인정공(주), 철곡 (주)전우정밀, 철곡 (주)엘쥬얼 등 9개 기업을 2012년 하반기 '경상북도 신성장기업'으로 선정, 표창했다.

'경상북도 신성장기업'은 2008년부터 2012 상반기까지 총 52개 업체가 선정된 바 있으며,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우대 지원받게 되고, 기술개발 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경북 제조업의 자부심! '경북 PRIDE상품' 추가 지정

2012년 9개 상품 지정, 총 46개 상품 글로벌 명품으로 육성 지원

경상북도는 10월 29일 2012년 '경북 PRIDE상품'으로 추가 선정된 (주)한중의 '중량인식형 승객식별센스', 마이크로하이테크(주)의 'LED조명', (주)이코니의 'TFT-LCD Glass 식각', (주)일지테크의 '금형', 산동금속공업(주)의 '플러그벨브', (주)미래인더스의 '알루미늄 기타 프로파일', (주)경한의 '에어스팀식 고온고압 조리살균장치', (주)영신에프앤에스의 '사무용가구', (주)경동산업의 '윈도우바이지' 등 9개 기업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경북PRIDE상품'은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시장·군수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2007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9개 기업을 포함해 현재 총 46개 상품이 지정되어 있다.

'제17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성대히 열어

농업명장 및 농·어업인대상 시상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경상북도는 11월 8일 농업인회관에서 '제17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김관용 도지사, 송필각 도의회의장,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및 농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2012년 농업명장과 농·어업인대상 수상자 13명을 시상하고, 부대행사로 우수 농수산물 및 지역 쌀 브랜드 전시·홍보, 농업인 단체별 장기 자랑, 전통놀이 한마당 등 다채롭게 행사를 진행했다.

2012년 경북농업명장에는 박범철(상주시 사벌면), 곽해석(고령군 안림면)씨가, 농·어업인대상 전체 대상은 식량부문 이명오(고령군 쌍림면), 분야별로는 친환경농업 김규원(예천군 감천면), 과수 박경동(포항시 청하면), 채소 박연홍(봉화군 춘양면), 수출 지명숙(안동시 와룡면), 가공유통 이문석(영덕군 달산면), 축산 한동조(문경시 산양면), 수산 최승걸(울진군 명해읍), 기술개발 강동영(영천시 대전동), 농어촌개발 김병훈(의성군 단밀면), 여성농업인 이명희(고령군 우곡면)씨가 각각 수상했다.

차세대 농업리더,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으로 키운다!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경북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11월 5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 함인식 경북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어업 발전과 청년리더 양성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상북도는 농·어업 인력 양성에 필요한 행·재정·제도적 지원, 교육청은 농림·수산업 고교에 대한 지원, 경북대는 경북 농정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 등으로 상호 협력키로 했다.

경상북도, 자원부국 몽골과 지방차원 외교 적극 나서

몽골 차세대 지도자 간바타르 의원과 원자력, 새마을 등 협의



김관용 도지사는 11월 30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몽골의 간바타르 생후 의원과 만나 경북도-몽골의 공동발전 및 상호협력 방안을 주제로 회담을 갖고, 몽골 제2도시 다르항시에 새마을 운동 및 민물고기연구 지원, 다르항시 건설과 도시개발에 대한 지원 및 경북업체 참여 등에 대해 협의하고, 스마트 원자로 설치, 새마을운동 지원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외교에 나섰다.

간바타르 생후 의원은 몽골의 제2도시인 다르항시 지역의 원인으로 지난 6월 총선을 통해 국회에 진출했으며, 현재 몽골 노동연맹의 총재이자 차기 몽골 대통령이 유력시 되고 있는 몽골에서 가장 촉망받는 차세대 지도자이다.

2012 경북도민의 날 행사 개최

자랑스런 도민상 시상, 새천년 도읍지 염원 모아



경상북도는 10월 23일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김관용 도지사, 박성만 도의회 부의장과 도의원, 시장·군수·도내 기관 단체장 등 2,000여명의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민의 날' 행사를 개최, 특히 경북의 역사를 만들어 온 산증인인 '역대 자랑스런 도민상 수상자' 395명을 특별 초청, 이들로부터 도지사에게 바라는 희망메시지를 전달받았다.

또한 경북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도민의 귀감이 되는 26명을 선정, 석호진 LG

Display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3명에게 특별상, 이재춘 안동문화원장 등 23명에게 본상 등 '경상북도 자랑스런 도민상'을 시상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참석한 시장·군수와 함께 새천년 도읍지 신청서에 올라갈 기와장에도 도민의 염원을 담은 희망 메시지를 새기는 퍼포먼스를 통해 경상북도의 새천년을 위한 힘찬 도약을 선언했다.

저개발국 에너지 빈곤퇴치 위한 지구촌 동참 촉구

2012 월드그린에너지포럼 개최, 세계 명사 대거 참석

경상북도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제프리 삭스 UN사무총장 특별자문관 등 UN관계자, ODA국가의 에너지장관, 에너지 전문가, 기업,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등 30여개국 3천여 명이 참가하고, 특히 '하람의 봄' 당시 예멘의 민주화와 여성운동을 이끈 공로로 2011년 역대 최연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티와쿨 카르만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월드그린에너지 포럼을 개최했다.

3회째를 맞은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은 저탄소녹색성장의 미래성장동력이 되는 그린에너지의 글로벌화 전략수립을 위한 국제포럼으로, 이번 행사 폐막에서는 저개발국의 에너지 빈곤퇴치를 위한 지구촌의 동참을 촉구하는 경주선언문을 발표했다.



경북 소방대원 30명 하트세이버 선정

경상북도는 12월 6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심폐소생술로 도민을 구한 포항북부소방서 한범희 소방장 등 30명을 '하트세이버'로 선정, 인증서 및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등으로 죽을 직전에 놓인 환자를 병원도착 전까지 적극적인 응급처치와 정확한 응급처치활동을 통해 생명을 구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구급대원과 일반도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국화 '오렌지엔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수상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구미화훼시험장에서 개발한 국화 신품종인 '오렌지엔디' 품종이 12월 5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 '제8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에 구미화훼시험장은 2006년 장미 진선미 품종, 2007년 국화 피치엔디 품종에 이어, 스프레이국화인 오렌지엔디 품종 수상으로 전국 농업기관 중 유일하게 3개 품종을 수상하는 화훼연구기관이 되었다.

2012 대한민국 블로거어워드 '우수상'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 주최로 한국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2012 대한민국 블로거어워드'에서 '어서오이소! 경북(<http://blog.naver.com/gbnadri>)' 블로거가 관광 블로거로는 유일하게 광역지자체부문 우수상에 선정, 12월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최한 시상식에서 상패를 수상했다.

제3회 산학연 희망플러스 행사에서 상 휩쓸어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지원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이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청과 (사)한국산학연협회 주관으로 12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3회 산학연 희망플러스' 행사에서 산학연 스타기업 대상에 (주)한일알텍(공동연구 : 금오공대), 금상에 대한금속(주)(공동연구 : 대구대), 산학협력 R&D우수과제 부문 아토틀라피(공동연구 : 대구한의대), 산학협력 사업화 우수과제 부문 (주)원바이오젠(공동연구 : 금오공대) 등 지역기업이 대거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 e-마케팅 전국대회 '대상' 수상

경상북도 공식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사이소'(<http://www.cyso.co.kr/>)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이베이에코리아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후원으로 전국 10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육선/G마켓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 대회'에서 대상에 선정, 12월 6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패와 상금 600만원을 수상했다.

2012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연초 대통령의 물가안정 특별지시에 따라 정부역점시책으로 추진한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포항시가 우수상, 영주시가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11월 28일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 향후 6년간(2012~2017) 총사업비 156억원 확보와 더불어 경북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생산성 제고와 현장 직무능력 향상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물부 농산시책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경상북도는 농림수산물부에서 시행한 '2012년 농산시책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로 선정,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시·군 부문'에서 '안동시'가 최우수, '특화작목재배단지 부문'에서 '예천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이 우수, '들녘별경영체 부문'에서 '상주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이 장려를 수상했다.

유럽관광시장 겨냥, THOMAS COOK 여행사 시범여행

경상북도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유럽최대 여행그룹인 THOMAS COOK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유럽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범여행을 추진했다. 16명으로 구성된 시범여행단은 경주를 찾아 불국사, 석굴암, 국립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신라 궁중음식점을 찾아 한국의 음식문화를 직접 체험했으며, 한국의 전통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기도 했다.



감염병관리 평가 우수기관상 수상

경상북도가 11월 22일 대구 인터블고호텔에서 개최된 2012년 전국 감염병관리사업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생충관리사업 우수 기관상에 예천군, 가을철 발열성질환관리 우수 기관상 고령군, 김미경 경주시보건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쾌거를 달성했다.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11월 21일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인터넷 중독예방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과 MOU를 체결, 도내 학교폭력, 성희롱 예방 등 기관간 자체사업과 연계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을 위한 협조와 함께 인터넷 예방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경북문화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 선정 시상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공모전에서 전통문양(제14회) 분야 대상에 GS디자인 김상미씨의 '문화재 조각보', 캐릭터 디자인(제8회)분야 대상에는 동서대학교 김신아씨의 '경상북도의 전통과 멋' 등을 수상작품으로 선정, 12월 21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시상식과 함께 전시회를 가졌다.

세계물위원회(WWC) 최다 한국 이사기관 선출

경상북도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된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 WWC) 제6차 총회에 참가, 세계 277개 WWC 회원기관의 투표로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물포럼(KWF), 한국수자원학회(KWRA), 글로벌녹색성장기관(GGGI)이 세계물위원회 이사기관에 선출 또는 재선출 되는데 일조,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 국가의 위상을 과시했다.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회 '전자정부 우수기관상' 수상

경상북도는 전 세계 50여 개국으로 구성된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회'로부터 정보격차 해소 정책 수준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 전자정부 기관상을 수상했다.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회 총회에서 차기 의장국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장은 경상북도 정보격차 정책은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는 현시점에 가장 훌륭한 모범정책으로 세계도시에 벤치마킹 할 사례라고 환영사를 통해 극찬했다.

싼타 딸기 세계최대 딸기 육묘회사와 판매권 계약체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 딸기 '싼타'가 전국 최초로 로얄티를 받고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11월 1일 중국 북경에서 세계 최대 딸기육묘회사인 'Eurosemillas'와 판매권 계약을 체결, 우리 품종 '싼타' 딸기가 중국과 일본지역에 로얄티를 받고 진출하여 우리나라 육종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평가 전국 최우수

경상북도는 2012년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비 3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는 그동안 명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 친절마인드 교육, 선진지 견학, 상해보험 가입, 피복비 지원, 대기소 증·개축 문화관광해설사 복리후생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결과이다.

■ 경상북도가족위생시험소 '구제역정밀진단기관' 지정

경상북도가족위생시험소는 11월 8일 김관용 도지사, 정상진 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생산자 단체장, 각 지역 축협조합장, 시·군 축산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가족방역기관으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구제역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 10. 30) 받아 현판식을 개최했다.



■ 사라져가는 개량조개 되살린다!

경상북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동해 특산 패류인 개량조개(방언 '명지조개') 치패를 포항시 도구 및 두호 해안에 20만 마리, 경주·울진에 각각 5만 마리, 영덕군 고래불 해안에 10만 마리 등 4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지난 5월 종묘를 생산해 6개월간 키운 것으로 개체 크기가 1~2cm의 건강한 치패이며, 3년 정도가 경과하면 8cm급으로 성장해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북도-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10월 30일 서울시 학교급식에 경북도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데 합의하고 김관용 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경북 수출사과 'DAILY', 국제브랜드로 성장

경상북도는 경북 수출사과 'DAILY'가 2008년 9월 한국 사과 최대 수출국인 대만특허청 등록을 시작으로 지난해 미국에 이어 최근 말레이시아까지 상표등록, 상표출원 11개국 중 싱가포르, 일본 등 7개국에 상표등록을 완료하여 지역 농산물브랜드도 국제적 수출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도에서는 태국·러시아·베트남 등 4개국도 조기에 등록을 마무리 하여 사과 수출 시장을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 사할린 동포 경상북도 방문 환영 간담회 가져

경상북도는 '영주귀국 한인을 위한 사할린 방문사업과 사할린 현지가족 고국방문사업'의 일환으로 10월 18일 사할린 거주 한인 2~3세 14명을 고국으로 초청, 영주귀국으로 헤어진 가족과의 상봉을 주선하고 이주석 행정부지사와 김춘희 경상북도새살림봉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간담회를 가졌다.



■ 경북한우 및 젓소, 전국경진대회서 우수성 재확인

경상북도는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협중앙회 안성팜랜드에서 개최된 2012년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4개 부문에서 입상하고, 같은 장소에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 제19회 한국홀스타인 품평회에서도 9개 부문에서 입상하는 등 경북한우 및 젓소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경북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감사패 수상

경상북도는 10월 31일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된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최 '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식'에서 도내 템플스테이 관광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공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한국불교사업단 단장 법진 스님이 수여하는 기관 감사패를 수상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경상북도는 10월 12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정부 중앙청사 본관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업무추진 실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태풍 '산바' 피해 긴급복구 지원활동



경상북도의회 송필각 의장, 박성만·한혜련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과 도의원들은 9월 18일 태풍 '산바'로 집중피해를 당한 성주 지역을 찾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복구복구를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 윤성규 도의원 등은 같은 날 제방이 유실된 고령군 고령읍 및 개진면 일원을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점검했으며, 이외에도 도의원들은 각 지역구별로 태풍피해가 발생한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도의회 사무처 직원 60여명은 9월 19일 포항시 기계면 고지2리 10여개 농가를 방문하여 긴급 수해복구 영농지원 활동을 펼치고, 9월 25일에도 송필각 의장을 비롯한 정영길·박기진 도의원, 이태암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 직원 40여명이 성주군 벽진면 3개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제거작업을 도왔다.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9월 24일 도의회의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로 사시 32회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섭씨와 배동천씨 2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고문변호사 임기는 2014년 9월 30일까지이고, 기존 2명은 2013년 4월 30일까지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제258회 임시회 결산>



도정질문, 민생관련 안건처리, 도정현장 확인 활동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최,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민생관련 의원발의 안건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도정현장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고, 10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처리하고 폐회했다.

■ 도정질문 요지



■ 이상웅 의원(행정정보복지위원회)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위한 적극적 행정추진과 대산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촉구, 취업지원센터간 통합운영, 취업지원센터의 지역형평성·인력예산의 효율성 문제, 취업 후 사후관리, 전문인력활용과 전문성 향상방안, 저조한 문화바우처 사업의 활성화 대책과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군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보장 대책,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이용 활성화 대책, 기숙사 사감 비정규직 채용 이유와 정규직 전환 의향 등을 질문했다.

■ 서정숙 의원(문화환경위원회)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경북도의 견해,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상사업 확대 등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 국내의 항공기업 유치방안과 항공산업의 추진방향 및 과제, 경북도립대학 내 항공관련 학과 신설 의향, 영천 항공부품산업·구미 디지털·경주 자동차산업 등의 연계 클러스터 구축 및 시너지 극대화 방안, 독도교육·다문화교육·학교폭력 분야 사업에서 도청과 교육청의 공동협력 및 특화부분으로 구분 추진 필요 등에 대해 질문했다.



■ 나기보 의원(농수산위원회)

재해예방 대책과 예견되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근본적인 재정비와 종합적인 관리방안, 명품 자연휴양림 조성 및 노후시설 개선대책, 이용객 증대 등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도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대책 및 이전을 위한 동기부여 대책, 이전공공기관의 유관기관 동반이전을 위한 지원 대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대책, 비즈니스센터 확대 건립, 혁신도시와 김천산업단지 간 국도지선 연장 지점의 조속한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이양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도청 이전지 이주민 보상과 관련 보상액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사유, 저소득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도청 이전지 보상협의회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유, 정부부지사의 역할 중 도의회와의 정부업무 강화방안, 감염성 질환인 결핵 관리와 보건교사 배치문제, 결핵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구미 지역이 높은 이유, 결핵퇴치를 위한 예방대책과 중2·3학년에 대한 대책, 보건교사 확충과 미배치 교의 보건교육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 구지근 의원(교육위원회)

구미-칠곡 통합 관련 주민의사 반영 및 감등해소 방안과 칠곡군 흡수통합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한 입장,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관련 도시지역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가 여차별 받는데 대한 개선대책, 시(市)지역에 도심형 보건지소 내지 일반 보건지소를 더 확충할 방안,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를 비롯해 의료취약계층의 3분의 2이상이 몰려있는 시 지역을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등을 질문했다.

■ 농수산위원회, 구미 '불산 누출사고' 철저한 대책 촉구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10월 4일 경북도 관계자로부터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현황과 복구 및 지원대책, '영천 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의안' 채택결과 허가된 '영천경마공원 설치허가'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7일에는 농수산위 전체 의원들이 함께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주)휴브글로벌을 방문, '불산(HF)' 누출로 피해를 입은 피해농가를 위로·격려했다.



■ 제4기 정책연구위원회 본격 가동



경상북도의회는 10월 4일 제4기 정책연구위원회 입시회를 열어 위원장에 장세현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창숙 의원을 선출하고 9대의회 후반기 정책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도 연구활동 결과 발표와 2013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심사를 위한 일정을 확정하고, 위원회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 교육위원회, 영덕교육지원청 등 현지확인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10월 9일 영덕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하고, 영덕 고래불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개원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10월 10일에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 피해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현황을 둘러보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현지확인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10월 8일 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사·의결하고, 기획조정실로부터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이날 오후에는 대구 만촌동 소재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과 동부정류장에 있는 '(주)천마고속' 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5회 경북식품박람회장 방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10월 12일 위원회를 개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경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2012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을 심사·의결하고, 이날 오후 채옥주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보건복지위원들이 함께 김천에서 개최된 제5회 경북식품박람회장을 방문하여 행사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10월 15일 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회 및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 결의 등을 심사했다.

■ 문화환경위원회, 구미 불산사고 피해지역 방문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길)는 10월 17일 경북도와 청도군에서 추진 중인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과 청도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구미 불산누출사고 관련 상황대책본부가 차려진 구미코를 방문하여 근무자를 격려하고, 피해마을을 둘러본 후 피해주민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구미환경자원화 시설과 해평면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위로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내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영천 경마공원 조성지와 포항 가속기연구소를 방문하여 예산 심의자료 수집 및 의견을 청취하고, 영천과 포항지역 곳곳의 민생현장도 두루 살펴보고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도민의 불편한 사항을 청취했다.

경북도의회, 5개 특별위원회 구성 완료

· 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황이주(울진)



김봉교(구미)

위원



김영식(경산)



김희원(칠곡)



박태완(구미)



심정규(구미)



이시하(문경)



이태식(구미)



한창화(포항)

·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장경식(포항)



이용진(울릉)

위원



김수용(영천)



나현아(의성)



서정숙(비례)



이경임(비례)



이왕식(의성)



이정호(포항)



장세현(포항)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이상용(영양)



이영식(안동)

위원



김중천(영주)



김명호(안동)



도기욱(예천)



정상진(예천)



변우정(구미)



장영석(구미)



홍광중(교육)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김영기(청송)



홍진규(군위)

위원



김세호(경산)



김희수(포항)



배수향(김천)



정영길(성주)



추재천(칠곡)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권영만(봉화)



나기보(김천)

위원



구자근(구미)



김명호(안동)



김원석(포항)



김장숙(경산)



김하수(청도)



박기진(성주)



한재석(상주)

■ 사회복지연구회, '노인복지 정책' 세미나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회복지연구회(대표 박병훈)는 10월 30일 경주에서 송필각 의장, 정책연구위원회 장세현 위원장과 소속 도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의 노인복지정책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경북의 노인복지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 제259회 정례회 결산〉



■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경북도·교육청 예산 심사 ■

2012년도 마지막 회기 마무리

경상북도의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정례회를 개최, 11월 6일 오후 2시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도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9회 정례회 전체 회기 결정을 하고,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 및 교육청 각 실국 및 도내 각 사업장,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11월 21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으로부터 2014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11월 21일 오후에는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했으며,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3년 본예산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거친 이후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을 최종처리했다.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전심사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했으며, 이어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각종 안전 및 현안사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최종 처리하고 2012년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 도정질문 요지



■ 김하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마을세계화 재단의 국제기구 육성방안과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 세계화사업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에 대한 대책, 도의회 도정질문 추진 상황별 분류기준은, 도정질문 완료보고 된 47건은 실제 추진 중이거나 조치불가인 상황임에도 완료로 처리하는 이유, 도정질문의원에게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것에 대한 견해, 도정질문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향후대책,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 배수향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도내 '산촌생태마을'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원인, 산촌생태마을과 농촌마을을 종합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대책,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서류 위·변조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불법증차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를 도나 시·군에서 대·폐차 신고수리서 발급과 등록업무 '일원화'로 '통합관리' 하는데 대한 견해, 도내 전 지역 도시가스 조속한 확대 공급 계획과 불합리한 가스요금 편차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구미소방서·구미코 불산사고대책본부 방문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11월 6일 구미소방서를 방문하여 불산사고 대처관련 현황청취를 한 후 사고대응을 위해 노력해 준 관계자들을 위로 및 격려하고, 구미시 산동면 소재 구미코 불산누출사고대책본부를 찾아 중앙대책단 및 상황실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국 광역·기초의원 지방분권 촉진결의대회

경상북도의회는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의회 운영위원장과 도의원들이 11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 개정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진을 대정부에 촉구하였다. 특히 이날 강영석(상주) 의원은 전국대표 의원으로 나서 '지방분권 추진 전국광역·기초의회 결의문'을 낭독했다.



경북도, 겨울철 도로제설작업 비상체제

적설 및 결빙구간 안전운전 당부

경상북도는 12월 1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4개월여 동안을 '겨울철 제설 중점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지방도로의 제설을 위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겨울철 중점 제설대책으로 도로제설 취약지역인 경사지, 교량, 고갯길 등 도로 구간별 취약지구 157개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정·운영하기로 했으며, 제설장비 1,634대, 제설인력 11,560여명과 염화칼슘 4,524톤, 모래 37,250㎥를 확보하고 도로이용자가 긴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 17,985개소에 대하여 미끄럼 방지용 모래를 비치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동절기 설해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 각 도로관리청별로 기상상황별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유사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 체인 등 차량월동 장비를 반드시 준비하고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입구, 결빙구간 등에서의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 도로관리청별 비상전화번호

- ▷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053)320-9400
- ▷ 일반국도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053)605-6028
 - 포항 * 054)260-2555
 - 영주 * 054)630-0025~6
- ▷ 지방도 :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053)950-2258, 2222
 - 종합건설사업소 053)602-5836
 -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안동) 054)850-3225
- ▷ 시·군도 : 시·군 건설과(건설방재과)

▷ 담당부서 : 도로철도과 053)950-2258

중국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중국 라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돼지에서 구제역 확인

경상북도는 최근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구제역 발생국가에 대한 여행 자제 및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고,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 철저, 매주 1회 이상 소독, 매일 질병예찰, 외부인·차량의 출입통제 등 방역을 생활화하며 구제역의 심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1588-4060)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축산농가(가족 포함) 및 수의사 등 축산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하고, 해외 출·입국 시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 등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경북도는 10월 4일부터 구제역·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1일 영천시 가축시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발생상황과 똑같은 방식으로 현장 방역 훈련을 실시하는 등 2014년 5월 OIE로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인증을 위한 구제역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담당부서 : 축산경영과 053)950-2682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시행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영업 등록증 교부

경상북도는 12월 8일부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종전 '신고제'에서 식품 안전이 강화된 '등록제'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제는, 전국 유통이 가능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며, 등록제의 큰 차이점은 종전 신고제와는 달리 신규 영업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영업 등록증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12월 8일 이후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신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영업 등록을 하면 된다.

또한, 12월 7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2,066개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43개소) 영업 신고를 한 자(기존 영업자)는 12월 19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영업 신고증을 반납하고 등록증을 새로 교부 받았다.

다만, 영업등록증을 서한 교부를 받은 기존 영업자는 2015년 12월 7일까지 영업등록 기준에 맞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2015년 12월 8일 이후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는 식품 영업자들이 종전 신고제에서 등록제 변경에 따라 강화된 시설기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053)950-2437

주택 등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내 꼭 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상북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아직까지 도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어, 미신고·지연신고, 실제거래금액의 허위신고 등으로 2011년 248명(14억2천4백만원), 2012년 9월말 현재까지 172명(5억1천만원)이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밝히고 '실거래가 신고'를 기한 내에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대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의 경우 중개업자가 되며, 거래 당사자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중 일인이 된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에 매매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거짓신고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053)950-3687



영천와인관광 공모사업 선정... 국비 7억원 확보

숙박시설 설치, 와인마케팅 등으로 경쟁력 강화

영천시가 농촌진흥청 주관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에 『영천와인관광 어메니티 개발』사업이 선정돼 약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어메니티(amenity)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장소나 기구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을 일컫는 용어로 영천시는 2013년부터 2년간 영천와인투어를 체류형 투어로 발전시키기 위해 와인리 숙박시설 설치와 환경정비, 대규모 소비자 마케팅을 위한 와인마켓, 와인경매, 와인시네마, 전시회, 음악회를 아우르는 와인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천연염색, 승마, 스파, 음식 등 와인관광 연계자원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대 포도주산지인 영천은 2008년부터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와인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해 영천와인학교 건립, 와인인재 양성, 와인리리 설치 등으로 현재는 국내 최대 와인 생산지로 발돋움 했고, 2010년부터는 또 다른 시도로 와인투어를 실시하여 와인을 통한 관광 문화산업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영남최대 '신녕 치산관광지 캠핑장' 개장

청정자연 속에서 몸도 마음도 힐링

가족형 캐러밴 캠핑장인 영천 치산관광지 캠핑장이 11월 9일 개장했다. 치산관광지 캠핑장은 별의 수도 별의 도시인 천혜의 청정지역 영천시 신녕면 치산계곡 자락에 위치, 팔공산 최고의 절경인 치산폭포와 구름다리가 울창한 산림과 어우러져 최상의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영천시는 이러한 뛰어난 입지적 조건을 갖춘 치산계곡(치산리 1324-1번지) 일원 20,000㎡(6,050평)부지에 20억원을 투입해 캐러밴 14대, 관리사무실, 소공연장, 족구장, 산책로 등을 갖추고, 2013년에도 20억원을 더 투입해 캐러밴 14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오토캠핑장도 조성해 영남 최대 규모의 웰빙 캐러밴 캠핑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예정이다.

최대 6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캐러밴은 과일의 도시 영천을 알리는 포도, 복숭아, 사과, 배 등의 산뜻한 과일그림과 한국의 와인산업을 선도하는 영천와인을 홍보하고자 와인그림으로 외관을 장식하여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고 내부에는 샤워실, 화장실, 침실, 싱크대, 응접실, TV, 냉장고, 주방기구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예약은 인터넷 치산관광지 캠핑장(chisan,yc.go.kr)에서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성수기(7~8월) 10만원이며, 성수기 제외 주말(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은 8만원, 평일은 6만원이고, 영천시민은 성수기 제외 평일 10%의 할인 혜택이 있다.

안동, 탄탄한 기업유치 여건 속에 지역전반 활기 넘쳐

안동시가 도청신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SK케미칼 안동백신공장과 천연가스발전소, 바이오벤처플라자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문을 열 준비를 갖추면서 지역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안동이 활기를 띠는 가장 큰 이유는 도청이전에 따른 잠재력에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되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지역에 등지를 틀면서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동서4축 고속도로가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안동~포항간 국도공사와 국도우회 도로 등도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와 도청 신도시를 연결하는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2013년 국토부 예산에 타당성 조사용역비 20억원이 반영되며 개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서울~안동 간 1시간20분 이내 주파할 중앙신복선전철화 사업도 2012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면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 올해 8월 1일 경북북부의 숙원이던 LNG가스 공급도 개시되면서 입지와 교통, 용수 등 데도시 못지않은 탄탄한 기업유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 같은 기반 위에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 국내최대 백신공장인 SK케미칼 안동백신공장이 들어서고 천연가스발전소와 경북바이오벤처플라자, 하회물산, ㈜예안촌 등 4개의 식품전문 기업들이 속속 등지를 틀며 분양률이 88%에 이르고 있다.

SK케미칼 안동백신공장은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이다. 장비도입과 GMP시설을 갖추고 임상실험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계절독감, 신종플루 등 6개의 백신의 제품을 생산한다. 오산백신공장과 SK케미칼 혈액제제공장 유치도 추진한다.

천연가스발전소도 2013년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년 4월부터 상업발전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발전소측은 벌써부터 지역용화사업을 통해 지역민들과 끈끈한 유대를 갖추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바이오벤처플라자는 중소바이오업체를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200여개 업체가 활용의사를 밝히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13년부터 GMP(건강기능성식품우수제조)시설을 활용한 본격적인 기업체 제품대량생산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2012년 9월 협약식을 가진 식품전문기업인 ㈜예안촌과 ㈜엘츄릴, ㈜태원F&C, ㈜평해식품 등도 첫 삼읍 뜨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 5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풍산농공단지의 음료제조업체 OKF(주)도 105명의 종업원이 2012년 매출 1,000억원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담당 054)840-6238



포항시, 감사운동 청소년 인성교육 대안으로 사례 소개



박승호 포항시장이 청와대에서 감사운동 사례를 소개하고, 청소년 인성교육 대안으로 전국적 확산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지난 11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공동대표 안양옥 한국교총연합회장, 손병두 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간담회에서 감사운동을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박승호 포항시장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22명의 임원 중 지자체 대표 임원으로 간담회에 참석하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감사운동의 배경과 감사노트 · 감사엽서쓰기, 100감사쓰기 등 실천과제, 가족간의 100감사 전달, 칠순잔치 때 부모님에게 100감사 전달, 감사 결혼식 등 감사운동 추진사례와 효과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경제대열에 진입한 만큼 청소년은 물론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선진화 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이러한 정신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은 아주 인상적이다”며 관심을 표명하고, “감사나눔이 인실련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선정에 검증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으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편 인실련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육계와 재계, 종교계, 민간단체 등 2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가정 · 학교 · 사회가 함께하는 범국민 청소년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천운동 전개를 통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인성교육으로 쇄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난 10월 31일 교총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포항시는 이날 감사운동을 청소년 폭력예방과 인성교육 대안 프로그램으로 사례발표와 함께 대안으로 제안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감사운동이 전국의 여러 지자체와 기관단체에서 많은 문의와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 인실련에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검증과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어, 향후 인증프로그램으로 결정된다면 내년부터는 전국 학교에 보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포항시가 감사운동의 메카는 물론 새로운 정신운동 발상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겨울철 한파 이렇게 대비하세요!

- 1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장갑 등의 방한용품 꼭 착용하고, 옷을 여러 겹 껴입어 갑작스런 온도차에 대비하세요.
- 2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고, 실내에서 또는 부득이 실외에서 할 경우엔 한낮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하세요.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췌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 4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를 시키고 외출 시에는 꼭 꺼주세요.
- 5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예방하세요.
- 6 폭설·한파 시 고립이 예상되는 어르신이나 주변에 있는 경우,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1661-2129)로 연락주세요.

▶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 ☎ 119 (119안전신고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 1661-2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www.gpc.ac.kr



경북도립대학이 소중한 꿈을 가꾸어 갑니다

성공 미래를 위해 경상북도가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품질인증대학 선정
- 합리적인 등록금(1,094천원/1학기, 2012년 인문사회계열 기준)
- 2012년 장학금 수혜율 122%(2012년 공식정보)
- 2012년 상반기 공무원 특채 6명 채용(하반기 5명 특채 예정)
- 취업캠프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해외 문화탐방 및 단기 연수(중국, 일본, 호주, 미국, 캐나다 등)
- PRIDE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SMART형 인재양성

• 전/형/일/정

모집구분	전형구분	원서접수	면접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기간
정시모집 1차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 외 전형 (소방방재과 농어촌·기초수급전형 및 응급구조과 농어촌 전형)	2012. 12. 26 ~ 2013. 1. 13		2013. 1. 15	2013. 1. 15 ~ 1. 18
정시모집 2차	일반전형, 특별전형	2013. 1. 19 ~ 2013. 2. 3		2013. 2. 5	2013. 2. 5 ~ 2. 8
정시모집 3차	일반전형	2013. 2. 12 ~ 2013. 2. 17	2013. 2. 18	2013. 2. 18	2013. 2. 19



우리문화재 불법 반출 증인 자료를 찾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당시
문화재 도굴이나 약탈을 목격하였거나
현장을 담은 기록물(사진 등)을 소장하신 분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2. 11 ~ 2013. 6 (8개월)

■ 수집자료

- 우리문화재 불법(도굴, 약탈 등) 반출 관련 목격담이나 증언
- 불법 반출 현장을 담은 기록물(현장 및 반출문화재 사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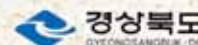
■ 접수방법 | 방문, 전화, 우편 등

■ 전화 접수시 직접 방문 자료 수집(거동 불편자 등)

■ 접수 및 문의처

- 경북도청 문화재과 ☎ 053-950-3576)
-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 054-453-9277)
-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

■ 자료 제공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5만원 상당)을 지급하며,
접수된 자료는 "우리문화재 불법 반출검거 증언록" 발간 자료로만 사용



시민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